

# 死別 및 離婚한 노인의 再婚에 관한 연구 I

—全州시 거주 再婚한 노인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Remarriage of Bereaved or Divorced Old People

—Emphasis on successful remarriage in Chonju Area—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 수 이 정 덕

박사과정 최 영 아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kuk University

Prof: Chung Duck Lee

Lecturer: young Ah Choi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In the point of view,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fe of remarried old people after divorce and bereavem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married couple's relationship and remarriage in old age and help old people who want to be abused about their remarriage as a coping response of life for widowhood in old age.

The subject were 14 old people who married over 53 years old bereavement and divorce residing in Chonju, Chonbuk and they had indepth interviews.

1. Most of subject would married with help of matchmaker under the consent a children and relative
2. The main motivation of remarriage was lonelies, however, for men being taken care and for women economic security were also important.
3. Premarriage experience seemed to help spouse adjustment between couples.
4. They matintained close relationship with there biological children.
5. There show a tendency to the bereavement woman remarriage life was happier

than divorce woman.

6. When one of the couple had regular income, little economic conflict was there. In most case, wives were younger than husband and economic stability after husband's death was their main concern and when the husband didn't show definite will to inherit asset to his wife, conflict got bigger.

## I. 서론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한국 사회는 출산율과 사망율이 저하되는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을 완료하면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왔다.

제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던 1945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 <표 1>은 45세 전후에 불과했던 것이 60년에는 55.3세 70년에는 63.2세, 80년에는 65.8세, 95년도 말에는 72.9세로 늘어났으며, 2000년에는 74.3세로 안정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연합연감, 1996)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표 2>는 1990년대에 들어서 총인구증가율 3배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혜택의 확대로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환경백서, 1996)

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년기의 생활이 길어진 만큼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옛말처럼 노년기의 삶의 질은 인생의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사회는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 노인 부양역의 약화 등 전통적 노인 부양체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노인의 위상과 삶의 질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저하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전통적인 효의식이 약화되어 가는 현재 상황에서 홀로된 노인의 생활에 있어서 재혼은 중요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년기에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들은 배우자 상실 그 자체만으로도 생활만족이나 사기가 저하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홀로 맞이하게 되는 노년기에 새롭게 적응해야만 되며, 남은 삶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만족스러운 사회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년기 재혼은, 홀로 남은 사람이 겪는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삶에 대한 동반감 및 자신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노후를 마감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이상적인 삶의 유형으로 여겨진다.(김태현·한혜신, 1996)

실제 재혼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한혜신(1996)의 연구로,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사별하여 55세 이후에 재혼한 남자 노인 7명과 여자 노인 4명 등 총 11명을 조사했으며, 본 연구자는 소州市에 거주하는 자로 53세 이상인 남자 노인 10명과 여자노인 4명 등 총 14명으로 사별 및 이혼한 성공한 재혼부부를 중심으로 1) 노년기의 재혼의 동기 2) 재혼의 성립과정 3) 노년기 재혼 가족의 가족관계(부부간의 적응: ① 경제적 적응 ② 애정 및 성적 적응 ③ 종교적 적응 ④ 친족 적응 ⑤ 의사소통 적응) 등을 조사하고, 4) 성인자녀 적응 5) 노년기 재혼의 문제점 등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특별히 표집 대상이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의 비율 차이가 큰 것은 우리나라 인습상 남자 노인의 재혼이 여자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월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표집은 무작위적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재혼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범위를 넓히고 그 잇점과 문제점을 밝혀냄으로써 새로운 인식과 노인관을 갖도록 하고, 홀로된 노인들이 노후에도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지향하여 외로움을 덜 수 있도록 재혼 상담 및 결정과 더 나아가 노인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再婚의 개념과 유형

#### 1) 재혼의 개념

재혼은 현재 홀로된 남자나 여자가 다시 결혼 생활을 회복하여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sup>1)</sup> 영어에서는 재혼을 나타내는 용어는 remarriage에 국한된데 비해 재혼으로 형성된 가족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reconstituted, blended, step, reconstructed, reorganized, reformed, recycled, combined, second-time around, 그리고 remarried family 와 같은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다.<sup>2)</sup>

급속한 고령화와 노년 인구 증가와 함께 배우자 없이 노후를 홀로 보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노년기의 재혼인데, 이에 관한 개념은 아직 합의되거나 규정된 것은 없다. 이것은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해 홀로된 노인들이 자신의 여생에 대한 새로운 대처 방안의 하나로서 선택한 것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와 자녀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결혼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한혜신, 1996)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 독신 여성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노년기에 결혼하기로 작정한 여자 노인의 결혼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된 '황혼기의 결혼(december marriage)' 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것은 노년기의 재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김태현 외: 1996, 유영주: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재혼의 개념을 노년기의 특성에도 현실 변화를 감수해야 하는 생활사건(사별·이혼)을 첨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노년기의 再婚이란 死別 또는 離婚으로 인해 홀로된 53세 이상의 남자나 여자가 다시 결혼 생활을 회복하여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안

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 2) 再婚의 유형

재혼의 유형은 재혼 가족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재혼 부부의 결혼 지위, 자녀의 유무, 자녀의 동거여부, 재혼 부부와 이전 배우자 가구와의 관계등이 유형 구분의 준거로 사용되고 있다.

여러 학자의 다양한 재혼 유형 분류 중 Ihinger-Tallman & Pasley(1987)는 자녀의 유무, 자녀와 재혼 부부와의 관계, 자녀의 동거 여부를 고려하여 복잡성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재혼 및 재혼가족에 대한 유형은 학자마다 여러 가지 준거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공식적으로 행해진 인구통계 조사에서 남녀의 초혼과 재혼의 여부를 기준으로 남자 재혼 + 여자 초혼, 남녀 모두 재혼, 남자 초혼 + 여자 재혼의 3가지 유형으로 범주화되어 있는 정도이다.<sup>3)</sup>

### 2. 노년기 재혼의 특징

고령자들의 재혼생활은 인생살이의 슬픔과 기쁨의 여러 경험을 지닌 남남자가 서로 위로하고 과거를 공동으로 회고하는 등 마음의 안정을 지켜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박재간, 1982)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과 가족이라는 제도를 이롭고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혼자된다는 것은 상실이나 결핍의 상태로 여기기 때문에 홀로된 여자들은 주어진 선택이라면 재혼하겠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sup>4)</sup> 노인들의 경우 주변의 재혼에 대한 편견이나 재산 문제나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한 자녀들의 반대로 재혼을 쉽게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적인 형태로 비밀리에 동거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거 역시 사회적인 규범의 이탈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합의와 자녀들의 동의가 있다면

1) 박재간 외(1995),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서울: 나남출판사), P. 275.

2) Lawrence H. Ganong & Marilyn Coleman(1994), Remarried Family Relationships, Sage Publication, p. 1-2.

3) Ihinger-Tallman & Pasley (1987), Remarriage, Sage Publications, P. 47-48.

4) M. Gentry & A. D. Shulman (1988), "Remarriage as a Coping Response for Widowhood", Psychology and Aging, Vol. 3, No. 2, pp. 191-196.

노인들도 동거보다는 합법적인 재혼을 선택한다고 생각된다.(김은진, 1995)

이처럼 노인들도 동반감이나 건강상의 이유, 자립심, 性的욕구, 경제적 이유 등의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혼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의 재혼 비율은 적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또한 노인 재혼에 대한 연구가 조금밖에 없는 실정으로, 한 연구( McKain, 1972: 1969)에서는 노년기에 재혼한 나이든 노인 100쌍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매우 행복했다. 이들 부부들은 이전 배우자와 사별한 후 외로워서 재혼을 희망했으며, 동료감은 재혼함으로써 느끼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다.

McKain은 노인들이 재혼할 때 자녀들과 상의를 했으며, 새로운 관계를 갖기 위해 그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생활하거나 그들의 외로운 느낌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Vinick(1978)는 McKain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제시했는데, 남편과 부인들이 재혼을 통한 새로운 관계에 대해 혼자 사는 것 보다 더 좋다고 말했으며, 배우자와 사별후 여자보다 남자가 더 생활하기가 힘들었는데 결혼함으로써 외로움을 줄일 수 있었다. 이 부부들도 역시 McKain의 couple처럼 동료감이 필요해서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inick는 나이든 노인이 재혼을 하는 것이 좋지만, 나이든 사람의 재혼은 복잡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두 부부가 아주 오래된 가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Moss & Moss(1980)는 새로운 배우자 중에서 부부가 과부이거나 홀아비이면 재혼하는 것이 더욱 복잡하다고 한다. 과부는 이전 배우자를 잊지 않고 있으며, 새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이 이전 결혼의 기억에 의해 평가되어지고, 전혼 생활에 대해 대화할 때 현재와 비교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 3. 재혼의 성공 요인

Moss & Moss(1980)는 홀로된 노인들이 재혼 생활에 적응하는데는 사망한 배우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홀로된 노인은 "첫번째 결혼의 프리즘"을 통해 새로운 결혼을 보았다. 즉, 전혼의 친근한 관계가 새로운 결혼 관계에 적응하는 데 중요하다.

McKain(1972)은 노혼부부 100쌍에 대하여 성공적인 재혼의 경우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커플이 새 배우자를 홀로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람이었다. 새 배우자는 전 배우자와 매우 유사한 사람이었고, 전혼이 만족스러웠을 경우 재혼도 더 좋았다고 한다. 그의 연구에서 75%의 응답자가 성공적이라고 답하였고, 6%만이 실패라고 하였다. 그가 제시하는 재혼의 성공 비결은 ① 아내가 14세 이내의 연하일 때 ② 많은 구혼 행동이 있었을 때 ③ 상호관심사가 있을 때 ④ 주거문제 같은 물질적 목표보다는 사랑과 동료감이 앞설 때 ⑤ 양 쌍방이 생활만족도가 높았을 때 ⑥ 가족-특히 자녀-과의 관계가 좋고, 자녀가 재혼을 승인했을 때 ⑦ 소득이 충분할 때 등이다.

Vinick의 연구(1978)에서 재혼한 노인 응답자의 80%이상이 재혼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남성은 내적 상태-과거에 가졌던 재혼에 대한 태도, 정신적, 육체적 건강-가 결혼 만족도와 상관 있었으나, 여성은 반대로 외적상태-현재 생활 상황: 동료 집단의 긍정적 태도, 적절한 주거환경, 운택한 재정 상태-가 관계 있었다고 한다.

또 부부간의 합의와 의사결정이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재혼 관계의 질은 사회인구학적 요인들보다는 개개인의 성격과 더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사회적 지원이 재혼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leman & Ganong, 1989)

#### 1) 재혼 가족의 가족관계

미국에서는 이혼율의 증가로 재혼 가족을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대체 가족'이라고 표현하며, 사별보

다는 이혼으로 인해 형성된 재혼 가족이 보다 일반적이다.(Ganong & Coleman, 1994) 이혼 후 형성된 재혼 가족은 제도적인 지침이나 기준,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적, 사회적으로 인정된 방법의 부족, 재혼 부부와 의붓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부족 등으로 초혼 가족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것이 재혼 가족이 더 높은 이혼율을 보이는 원인이 된다(Cherlin, 1978)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초혼 가족에 비해 의붓 부모 가족이 응집력이 낮고 문제해결과 의사 소통에서 덜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적이고 개방적인 의사 소통과 융통성, 그리고 가족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감만 갖는다면 초혼 가족에 못지 않는 기능적인 가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년기 재혼의 가족 관계에서도 노부부의 재혼이 이혼에 의한 것이며, 노부부에게 미혼의 전혼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혼 가족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응에 다소 복잡함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대부분의 자녀가 기혼이며 중년일 가능성도 높는데다가 특히 노부부가 사별로 인한 재혼일 경우에는 일반 재혼가족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의붓 부모와 자녀들간에 친밀감이 형성되기까지 긴장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사별로 인한 노년기의 재혼은 전혼의 배우자가 없으며, 자녀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전 가족 체계로 복귀하고자 하는 환상도 적을 것이다.(김태현·한혜신, 1996)

노년기의 부부 적응에 있어서도 바쁘게 살아온 지난날과는 달리 서로가 건강면에서 약해지고 생활 세계가 축소되며, 활동력이 감소되어 가는 시기이므로 이시기에 부부간의 적응은 새롭게 나타나게 된다.

노부부의 결혼 적응이나 만족도 등은 대체로 결혼 초기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결혼초부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중년기에도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웠던 부부는 노년기에 와서도 심리적·환경적 적응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으므로 노년기에도 계속 만족스런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여성개발원, 1993)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모-자녀 세대간의 완전한 독립이란 기대할 수 없다. 노부모-성인 자녀 관계에 있어서 유대관계란 단순한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애정적인 친밀감으로 지속될 때 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가족들의 친밀도 및 정서적 유대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강력한 지표가 된다. 특히 여성노인은 다른 부양 형태에 비해 정서적 부양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 2) 노년기 재혼의 안정성

노년기에는 유사한 교육 수준과 사회, 경제적 배경,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재혼하게 되므로 이러한 유사성이 재혼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이게 된다. 60세 이후에 재혼한 노인들은 다음과 같이 성공적인 결혼의 요인을 가진다. 첫째, 부부가 장기간 동안 서로 알고 지냈으며 둘째, 그들의 재혼은 자녀와 친구들의 동의를 받은 것이며 셋째, 서로가 은퇴와 노화의 양상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넷째, 서로를 위한 거처를 마련한 상태이며 다섯째, 경제적 어려움도 없으며, 생활하기에 충분한 수입이 있다(McKain · Lasswell, 1982) 는 것이다.

그러나 노년기의 재혼도 일반 재혼과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친밀감과 동료의식, 신변 안정의 증대,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혼 전에 여러 가지의 문제를 검토하는 일은 물론 재혼 생활의 행복을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이인수, 1995)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볼 때 많은 노인들이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노인 재혼을 홀로된 노인들의 노후 생활의 한 대안으로서 제시 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된다. 또 선행 연구 중 노인 재혼의 적응에 있어서 전혼 친밀도가 관계 있다고 한다.(김은진, 1995)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심층사례 면접법으로써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후 현재 재혼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 노인 10명과 여자 노인 4명으로 총 14명이다. 본 자료수집은 1996년 11월

22일부터 12월 23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본 연구자의 주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노인들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본 연구자에 의해 직접 수행되었으며, 대체로 가정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이용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대상자와 가까운 곳에서 만나 행해졌다. 면접시간은 대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였다.

연구 도구는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작성된 인터뷰 지침서로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첨가했으며, 노년기에 재혼한 노인들의 정서생활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문항이 분류되어 작성되었다. 즉 질문문항은 노년기의 재혼 동기, 재혼 성립 과정, 재혼 가족의 가족관계 및 재혼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인터뷰 지침서를 가지고 면접에 임하였으며, 응답자의 양해를 얻은 후 녹음을 하였고, 녹음 내용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 2. 노년기의 재혼 동기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혼이나 사별 등의 이유로 홀로됨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사별로 인한 홀로됨은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강한 영향을 주는 생활사건으로 보고되고 있으며(Clayton, 1973; Thompson, 1984; Seeman, 1987; Goldberg, 1988에서 재인용), 이같은 결혼 상태의 변화는 많은 개인적·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다음은 배우자의 사별 또는 이혼 후 느끼는 외로움에 대한 삶의 대안으로서 재혼을 선택한 노인들(조사 대상자 중 8명)의 사례이다.

“내가 신들려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아들(아홉번째)을 중절수술 했다고 남편이 자살한 후에 고생도 많이 했고,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서 남편래 애인을 하나 사귀는(3년)동안 우리 집에 세든 사람이 자기 친구를 나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자기가 보기에 내가 남자 친구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남편의 남자 좋아하면 뭐 하나고 결혼해서 몇몇이 살자고 하는 바람에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은 사업한다고 두 번이나 돈만 날렸지만 집에서 먹고 놀아도 남편이 있다는 것이 든든해요. 남이 나를 팔세를 안할 테니까요”(사례, 13).

“공사장에서 일하다 만났죠. 나도 외로운데(어린시절 고아원에서 자람)… 내가 안사람을 만날 당시 6남매를 기르면서 아파도 누가 걱정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가까워 졌지요. 그 때나 지금이나 일(박노동)하고 집에 들어와서 외로우면 술을 마시거나 안사람에게 전화해서 목소리도 듣고… 오라고 하면 오기도 하고… 내가 위암수술을 했는데 위를 4분의 3을 잘라버려서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래도 이 사람이 있어서…”(사례, 4).

그리고 남자 노인의 경우는 자녀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독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재혼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이는 도시 거주 노령자의 43%가 노부부만의 생활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별거(손승영, 1994; 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를 하며, 자녀와의 별거가 노인에게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자존감과 권위를 지켜주며,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동거형태(윤현희, 김명자, 1994)라는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노인문제연구소(동아일보, 1996)의 실태조사에서 자녀와 별거하는 이유로 가장 높은 비율은 “따로 사는게 되레 편하다”가 35%나 차지하고 있는데, 조사결과를 보면 노인들의 독립욕구가 높아진 것은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가사결정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자녀와의 별거를 원하는 노인들의 경우 독립할 정도의 경제적 뒷받침 뿐 아니라 독립된 가구를 이끌어 갈 만큼 건강해야 한다는 것도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혼자 남게 되니까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식사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사례번호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성 별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여	여	여	여
연 령	73	76	67	62	77	58	53	76	71	62	55	75	56	55
사별시본인연령	66		48	42	66		46	70		59	46	40	39	52
재혼시본인연령	56	39	49	52	67	57	48	73	27	59	50	49	45	54
배우자와 연령차	+5	+10	+11	+3	+13	+16	+4	+7	+6	+9	-10	-8	+3	-10
이혼시본인연령		40				50			26					
현배우자의 나이	68	66	56	56	64	42	49	69	69	53	65	83	53	65
교육수준	서당	소학교 4	대졸	무학	고졸	대졸	대졸	대졸	국졸	대졸	국졸	무학	무학	중학교 중퇴
배우자학력	무학	무학	고졸	무학	중졸	고졸	고졸	무학	소학교 2	중졸	대졸	소학교 4	무학	대졸
경제적수준	하	하	상	중	상	중	중	중	중	중	중	하	중	중
종 교	불교	무교	기독교	기독교	무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불교	기독교
배우자종교	무교	천주교	무교	무교	무교	무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천주교	무교	무교	기독교
과거직업	상·농	상·농	교사	노동	교사	학원 강사	회사	교사	사업	공무원	숙박업	주부	주부	회사원
현재직업	집세 농음	무	무	노동	무	과의	회사	교회 장로	무	무	주단 가게	무	사주 ·점	무
본인의 자녀수	6남매	무	1남 5녀	4남매	3남	3남	1남 2녀	3남 3녀	1남	2남 1녀	1남 3녀	무	8남매	5남 2녀
배우자의 자녀수	3남매	2남 4녀	무	6남매	2남매	1남 1녀	무	2남매	무	무	2남 1녀	8남매	무	1남 5녀
재혼후 자녀수	무	2남 4녀	무	무	무	무	무	무	2남 3녀	무	무	무	무	무
주관적 건강수준	나쁨	보통	보통	나쁨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나쁨	좋음	보통	나쁨	보통	좋음
자녀와의 동거여부	단독 부부	미혼딸 동거	단독 부부	미혼자 녀동거	단독 부부	전혼딸 동거	전처 자녀 동거	전혼이 혼자녀 동거	단독 부부와 손녀	단독 부부	전혼 자녀 동거	막내 아들 동거	전혼자 녀동거	단독부 부
혼자산했수	1년	1년 미만	8개월	7년	1년	6년	9개월	3년	1년	2개월	3년	9년	6년	3년
재혼했수	17	31	18	12	11	1	5	3	44	3	5	25	11	1년 이상
배우자의 결혼 결혼형태	재혼	초혼	재혼	재혼	재혼	재혼	초혼	재혼	초혼	재혼	재혼	재혼	재혼	재혼
전배우자와 헤어진 이유	사별	사별	이혼	사별	사별	사별	사별	이혼	사별	사별	사별	이혼	사별	사별
현배우자의 이혼경험			이혼			이혼				이혼			이혼	

문제나 집안일도 그렇고 해서... 그리고 며느리가 나를 모시자 하면 고생도 될 것이고... 지금 세상은 애들이나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을 모두 싫어하는 세상이니 까... 그래서 이웃간에 사는 안사람에게 사정 이야기를 해서 서로 마음이 맞아 같이 사니까... 지금은 자식들 눈치볼 것도 없고 마음도 편하지요..."(사례, 1)

또한 노년기에 주된 관심사로서 건강을 위한 몸시중과 뒷수발도 재혼의 이유(高橋 久美子, 1984; 이윤숙, 1983)가 되었다. 이처럼 노년기에 몸시중과 뒷수발을 이유로 재혼을 원하는 것은 배우자를 사별한 경험으로 생긴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으로 인하여 몸시중을 들어줄 배우자를 원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혼으로 인해서 혼자서 모든 일을 감수해 내야하는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재혼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식들은 부모를 이해못하죠... 혼자 있을때 몸이 아프거나 어려울 때 봐줄 사람이 없어요. 자식들이 있어도 한 방에서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아프지... 어쩐지... 알 수가 없고, 자식이 그것을 알아주냐 하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나 남편은 자다가도 물이라도 떠다 먹여주고, 약도 먹여주고..."(사례, 11).

또한 종교를 가진 노인들은 종교가 없는 노인들과는 달리 자신의 재혼 이유에 대해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나타내지 않고, 신앙적인 차원으로 해석하거나 이유를 덧붙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인들은 자신의 재혼에 대해 신이 예비해 놓은 일이므로 수용했다는 수동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자신의 신앙생활의 결실이며 바람을 이루기 위해 재혼을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재혼을 권하는 사람은 많았어요. 저희 집 사람이 운명할 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재혼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수가 있느냐...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주변에서 소개를 받고... 국가에서 효부상도 받았다고, 자식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를 개업해서 의사로 일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도 없는 분으로 믿음도 강한 분이어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게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인가보다 해서 같이 살게 되었지

요..."(사례, 8)

"사람들이 모두 잘 만났다고 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했으나 내가 절대로 응하지 않았어요... 그 때 우리 집 남편이 혼자 밥 해먹고, 빨래하고 그럴 것 같아... 그것이 애처롭게 보이고 내가 돕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모두 하나님 뜻이구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후회는 없어요."(사례, 1)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노년기의 재혼 이유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남은 여생의 동반자를 찾으려는 이유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자녀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앞으로 계속 건강을 보살피 줄 사람이 필요해서 재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는 자신의 재혼 이유를 신앙적인 차원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려는 태도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이윤숙, 1983)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대체로 경제력을 소유하였거나 자녀들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는 경제적 욕구만큼이나 정서적, 심리적 욕구 충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 노년기 재혼의 성립과정

배우자 선택은 시대, 사회마다 상이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또한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 작용하는 영역이므로 과학적인 명제로 그 핵심을 규정짓는 것은 힘들다.(김혜선, 1992, Adams, 1979에서 재인용)

누구나 동일한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녀가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대체로 비슷한 경로를 거치게 되며(유영주 외, 1995), 노년기의 재혼에 있어서도 초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 단락에서는 노년기 재혼의 성립과정으로 대상자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법과 배우자 선택 기준, 그리고 가족들의 반응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배우자 선택 방법으로는 자유혼과 중매혼, 이 두가지 형태를 겸한 절충혼이 있으나,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에 대해 보수적인 관습으로 인한 가풍을 중요시한 중매혼이 지배적인 데다가 혼자 사는 노인 스스로가 재혼할 의사가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로 자녀나 주위 사람의 소개로 만난 사람과 한두번 보고 재혼을 결정하는 중매혼이 지배적이었다.

“한 일년 혼자 살아보니까 집에 가 보아야 재미있고 명랑한 것도 없고, 자식들도 쓸쓸하니까 자꾸 재혼을 권해서 했는데… 그리고 전처 친구들이 쓸쓸하니까 빨리 재혼해서 살아야지… 앞으로 건강문제나 소외감을 어떻게 할려고 그러냐고 하두 졸르고 그래서… 그리고 딸들도 재혼하라고 권유해서…” (사례, 5)

“재혼 할려고 안했는데… 내 이종 오빠라는 이가 여러차례 소개를 해서 맞선을 보게되었지… 그리고 얼마되지 않아서 재혼했지 뭐… 사실 전남편이 공무원이어서 인품이 많이 차이가 있지만, 언제까지 친정(서울)에만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례, 12)

한편 소수(3명)의 경우 한 동네에서 안면이 있거나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동안 사귀어 보고 결혼을 선택하는 자유혼도 보였다. 다음의 두 사례는 이웃에서 인면이 있는 노인으로 자유롭게 만나보고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재혼을 결정한 경우이다.

“이웃간에 살았던 분이라 안면이 조금 있었고, 내가 혼자되어서 같이 지내면 어떠하겠냐고 하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은 별로 없지만, 서로 마음으로 ‘응’ 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지요.” (사례, 1)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만났지… 내가 일하는 곳에서 라면도 끓여주고 하면 추가로 봉급을 더 높여 주겠다고 하니까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친하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언젠가 한 번, 비 오는 날… 안사람이 몸이 몹시 아팠어요. 그때 누가 돌보아줄 사람도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때 약을 지어가지고 가서 도움이 되었을거야… 맘에 들어서 재혼 한게 아니라 서로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서…” (사례, 4)

이상과 같이 노인들은 주위 사람들의 소개로 만나거나 알고 지낸 사람과 사귀어보고 재혼을 결정하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는 재혼에 영향력을 미치는 배우자 선택 기준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본 연구 조사에서는 대상자 중의 10명(남자 노인 8명, 여자 노인 2명)이 자신의 배우자 선택 기준으로 사람됨됨이를 중히 여겼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의 재혼의 주된 동기가 ‘외로움’인 만큼 무엇보다도 그러한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맞고 편안한 배우자를 원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고모부의 여동생이 안사람 집을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눈에 띄었나봐요. 참한 사람이 있더라고 해서 맞선을 보게 되었는데… 대화를 하다보니 원만한 관계가 지속되었고…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지요.” (사례, 7)

“난 사실 처음에는 내 나이가 재혼 당시 73세이지만 50대 여성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사람이 갖추고 있는 여러면(심성, 효부상, 경제력, 자녀들)이 마음에 들어 재혼도 맞선 보고 내가 먼저 하자고 했지요… 음,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인 공신력은 변함이 없으니까…” (사례, 8)

그리고 특히 남자노인의 경우 배우자의 기준으로 전혼 자녀가 없는 여자를 원하기도 하였다. 이는 조기동의 연구(1993)에서 처럼 자녀수가 선택 변인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자녀수가 많을 경우 재혼해서 맺게 되는 복잡하고 불편한 관계를 우려한 결과이다. 이러한 조건은 전혼자녀가 많은 사람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전혼자녀로 인한 부부간의 복잡한 관계를 피하기 위해 자녀가 없는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하는게 남자노인의 자녀들과도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안 사람이 암에 걸려 병원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기전에 내 성격을 잘 알고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자기 친구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별 후에 만나서 서로 의사를 타진해 보니 딸 자식이 4명이나 되어 여러모로 부담스러웠어요. 그러자 내 친구가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지만 딸린 자식이 없어서 좋을 것이라는 제의를 받고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사례, 10)

“첫째는 나보다도 어머니가 더 서둘렀어… 한 동네 맞은편에 살면서 집안 내력을 다 알고 그러니까, 소개하기를… 압전하고, 깔끔하고, 처녀라서 딸린자식 없다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보니까 의사도 상통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서둘러서 결혼을 시켰고, 혼인신고도 바로 했었지요”(사례, 9)

한편 남자 노인의 경우 배우자 선택과정에서 상대가 나이가 너무 적을 경우 자녀들이 호칭문제나 대외적인 권위문제·새어머니로서의 위엄도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배우자를 선택하려는 부모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다.

“내가 전혀 죽고 혼자 있을 때(49세) 처녀가 나한테 시집온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여자들이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재혼하고 싶었는데 큰 딸이 이 여자를 강력히 반대하는 거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나이가 자식들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서 위엄도 없고, 누가 알아도 좋은 일이 아니고… 모든 면에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그 후 큰 딸이 올케랑 여러 동생들을 모아서 나를 설득을 시켜 재혼을 주선했는데… 지금 안사람 장모되는 분이 우리집 근처에 와서 내력을 알아보고 ‘그 사람 원만하다고 하니가 사람을 넣어서 내 자식들과 상의 끝에 만나게 했지요.’(사례, 3)

“사실 내가 우리집 사람과 재혼은 했지만… 우리 큰 애하고도 많은 대화 끝에 설득되어 내 뜻은 기억하지 않았지만, 여러모로 우려는 하고 있지요. 딸애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지… 큰 아들이 대학원에 다니지, 막내 아들이 고등학생이지… 그런데 집사람이 아직 42세니까 나하고 16년 차가 나지… 혼연히 잘 하면서도… 자식들이 때때로 거북하다고 하지요.”(사례, 6)

이상과 같이 노년기의 배우자 선택기준은 사람됨됨이가 최우선이었으며, 그 밖의 기준으로는 혼자된 사유, 자녀의 유무, 나이 차 등을 들 수 있었다. 이처럼 노년기의 재혼은 젊었을 때의 결혼과는 달리 재혼해서 가족들과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이나 서

로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재혼 성립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들의 반응으로서 주로 자녀들의 찬성과 반대에 관한 것이다. 현재 성인자녀는 부모 노후의 가장 주된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장남이 노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그 의미를 잃었다하더라도 여전히 장남이 노부모를 돌보는 경향이 우세하며(송현애, 1993), 전통적인 효의식의 변화로 노부모 모시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변형이 모색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남자 노인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나서서 재혼을 시키고 있으며, 노후를 홀로 보내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그리고 모시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재혼을 권유하기도 한다.(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

본 연구 결과에서도 노부모의 재혼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두 가지 반응이 모두 보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이 노부모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사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재혼을 권유하기도 하고(대상자 중 12명은 자녀들 또는 주위 사람들이 재혼을 권유한 중매혼이었으며, 2명은 자유혼)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옷감 대리점에 물건을 하러 갔는데 사장이 넌지시 소개를 하여… 그 후 세 네차례 계속 소개를 받고 맞선을 보고 나서 자식들에게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대략 말해주니까 우리 큰 아들(대학 재학중)이 직장(농협)으로 직접 찾아가서… 밖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던 끝에 ‘우리 어머니’를 잘 맡아 주셨으면 한다고 부탁을 주고 받고 했던지… 몇일 뒤 내가게로 농협에 근무하던 우리집 아저씨가 ‘예금 하나 들어 주실 수 있나’고 찾아와서 대화가 시작되고 딸들도 오빠 뜻을 따르게 되어 부부가 되었지요”(사례, 1)

“나와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를 소개할 테니 허실삼아서 보라고… 그런 말들이 오고갔어요… 처음에는 싫다고 자꾸 거절했는데, 언젠가 주일날 한 번 만나자고 하더니만 그 자리에 남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만나서 한 번 보고 서로 마음에 들어 결혼하기로 결정했지요…”(사례, 14)

이상의 사례를 통해서 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재혼은 자녀들의 적극적인 찬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재혼 횟수는 평균 14년 <표 1 참조>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자녀들의 찬성과 이해는 노부모로 하여금 자신의 재혼에 대해 떳떳한 태도를 갖게 하며, 자녀들에게 정서적, 경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재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 4. 노년기 재혼 가족의 가족관계

##### 1) 부부간의 적응

노년기에 재혼한 부부는 대부분 자녀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서로의 노화에 적응을 한 상태이므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적응 여하에 따라 부부관계의 만족도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면에서의 적응에 관하여 살펴 보려한다.

첫번째, 경제적 적응에서는 대체로 남자 노인의 경우 은퇴한 후라도 자신이 은퇴전에 모아두었던 재산이나 자녀들의 용돈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도구적 역할을 계속 담당하고 있었다. 여자 노인의 경우 경제력이 있는 경우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지 않고 자녀들의 교육비 까지 담당하고 있었으며(2사례), 가사노동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했으며, 자녀들로부터 때때로 경제적 원조를 받았다.

“내가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그 중에서 안 사람에게 매월 60만원씩 생활비를 주고 있다. 그리고 자식과 딸들이 조금씩 주기도 하고…”(사례, 10)

“생활비는 우리 아저씨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내 자식들로부터도 보조받는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저씨 전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약간의 용돈을 주기도 하지요.”(사례, 11)

두번째, 애정 및 성적 적응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성적 친밀도는 결혼 생활 만족도와 높은 상관 관계가 있으며 부부의 결속력을 높히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개 여자들의 경우에는 폐경기가 지나면서 성적 욕구가 점점 사라지고 기능도 약해지나 남자들의 경우에는 개인차가 있다 하더라도 60, 70 혹은 80세까지도 성적 기능이 유지된다. 그래서 노년기 부부간에도 성적 불균형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2) 조기동(1993)의 노인 재혼에 관한 효시적인 연구에서도 노인의 재혼과性生活에 관한 문제는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재결혼에 성생활이 미치는 영향을 시사하였으며, 결혼생활에 있어서 상호간의 애정표현과 성생활의 원만한 적응은 노후생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는 최영아·이정덕(1996)의 연구결과를 더욱 지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부인하고 나는 두달이나 석달 만에 한 번 갈 똥똥 해… 하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그림이나 맞춰 주는 거지. 지금도 여자들이 가끔 한 번씩 접근해 오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 안사람 말고도 친구가 필요하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해… 그렇다고 아들이나 딸보고 말할 수도 없고… 사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지… 그렇다고, 아쉽지만 어떻게 해…”(사례, 4)

따라서 조사 대상자들에게 성적 적응에 대해 질문 하였으나 대부분 쑥스러워하거나 응답을 피하기도 하고, ‘그것… 거시기… 잃어버린지 오래야’, ‘남 된지 오래야’라는 표현으로 대답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노년기에도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져도 성적 욕구는 지속적인을 알 수 있고 여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性的의식이 긍정적이었다라는 것은 최영아·이정덕(1996)의 질적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 주기도 한다.

“할머니가 나한테 참 잘해… 내가 내장(간)이 나빠서 약을 음… 대략, 8년이나 먹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는건 다 안 사람 덕분이고… 그래도 아직까지 두 늙은이가 서로 남 보듯이 않고 건강 생각해서 한 달에 두 세번 정도 가지”(사례, 12)

“저녁이라도 몸이 아프면 나를 병원에 끌고 가서 치료해 줄 때,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있어서 듣는하고 우리 자식들하고 싸움안해서 고맙고… 나같은 여자에게 잘 해주니까 감사하지… 그리고 우리 남편이 ‘색깔’이라서… 지금 갈아서는 혼자 살겠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야… 내가 우리집 아저씨보다 3살 많아서 그런지 힘들 때도 있지. 아저씨는 ‘색’이 강해… 그러나 우리 둘이 없으면 지금도 정신없어. 하하하하… 그런데, 음… 몸생각도 해야하고, 하고 나면 몸이 피곤하니까, 내가 부처님을 모시는 날이나 ‘남의 곳’을 하러 가거나 특별한 일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핑계로 아저씨를 달래어性生活을 즐기기도 하자…”(사례, 13)

이와같이 남성노인의 경우는 노년기에도 성적인 관심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성적으로 생긴 불만은 다른 부분에도 미칠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자 노인이 직업을 가진 경우 가사노동의 수행까지 이중 업무로 인해서 부부의 성적 적응에 있어서는 남성보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 종교적 적응에 대한 것으로는 배우자 선택시 상대의 종교를 고려했기 때문에 동일 종교인 경우 부부적응에 큰 문제가 없었으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남자의 경우 안사람이 남편의 종교에 따른 경우 (3사례)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노인 부부간의 종교간의 갈등은 노년기의 안정된 부부생활(심리적·정서적)을 위해서 서로 간섭을 안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그리고 재혼생활에 어려운 점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위로 받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리는 둘이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서로 생각이 틀리지 않으니가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도 잘 맞고,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없어요…”(사례, 8)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해수가 약 20년쯤 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직장 전근관계로 이동이 많아서 다니다 말다 했는데, 요즘에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부부화합도 잘 되어가면서… 음, 이제는 안사람

도 교회에 같이 가지요…”(사례, 10)

이와 같이 조사대상이 된 노인들은 대체로 종교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되거나 어려움이 적은 것으로 보이며, 노년기 정서생활에 있어서 서로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면이 보이고 있다.

네번째 친족 적응에 있어서는 특별한 일인 예사·경사에 참석하거나 평소에 왕래하는 일, 서로 간에 전화로 안부를 묻는 일, 제사 지내기, 설날·추석날 가족 모임 등에 부부가 어려움 없이 참석하는 경우와 참석여부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어 부부적응 및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남자노인이 재혼이고 여자노인이 초혼일 때 친족적응이 초혼처럼 아주 잘되며, 여자노인이 이혼경험이 있을 경우 친족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혼해서 이렇게 사는 것을 이제는 친척들도 괜찮게 생각하고 있지. 지금은 재혼 한 사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사이도 원만하고 자주 왕래하지… 애당초 처가집에서도 나하고 안사람하고 재혼하는 것을 좋다고 했어…그리고 우리 안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매사에 아주 부지런하지”(사례, 2)

“현재 부인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약간 폐쇄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친족문제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지요. 친척집에 예·경사나 제사 때, 처음에는 몇 번 참석하더니 이제는 다니지 않기 때문에… 참석할 일이 있으면 권면을 해서 응하지 않으면 포기를 하고 다시 말하지 않아요”(사례, 7)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남자 노인은 재혼사실로 인해서 겪는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장애가 적은 반면, 여자 노인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혼 사실과 이혼후적응문제로 가정적, 사회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아직도 실제 재혼 생활에서는 초혼보다 재혼이 가족관계나 친족관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는 관계로 시간을 갖고 지속적인 적응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다섯번째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재혼생활은 초혼과는 달리 결혼생활을 이미 경험한 입장이기 때문에 대화시 대체로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려고 노력하거나, 주의를 많이하는 편이며,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일이 자주 있어서 곤란하거나 어려운 일인 적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남성노인의 경우 집안의 안정을 위해 초혼 때와는 달리 ‘꼭’ 참는 입장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부부의 대화는 조용히 살려고 노력하는 편 이니까 부드럽고, 서로 의견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서 마찰을 줄이고 있지요. 금전 문제나 불편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살살 돌려가면서 하지요.”(사례, 8)

“부부간에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16세)에 때때로 여러면에서 양보하지요. 그러나 서로의 의견이 대립될 때는 괴로울 때도 많이 있어요. 가끔 자기 고집이 강해서 이혼을 각오하고 입다툼이 벌어져요. 언젠가 한 번은 내가 무릎을 꿇고 빌어가지고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평소에 어려운 이야기나 걸끄러운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의견을 안사람에게 이해시키려고 설득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지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부부의 애정은 변함이 없어요.”(사례, 9)

## 2) 노부모와 성인자녀관계

일반적으로 노년기 이전의 재혼은 대개 의붓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가 주된 갈등이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재혼은 주로 자녀들의 이해와 권유,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이루어졌으며, 자녀들이 대부분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재혼한 노부모와 독립된 가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갈등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대부분의 자녀들이 새로 맞은 의붓 부모에 대해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이따금씩 찾아뵙기도 하고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명절에만 참여하는 경우(7명) 이고, 자주 왕래하는 경우(4명),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자녀가 없어서 왕래가 없는 경우(3명)로 구분되었다.

물론 재혼한 노인들 역시 그것을 당연시 여기거나

필요에 따라서 본인만 자기의 전혼자녀에게 다니는 경우와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보러 부담없이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두 배우자와 전혼 자녀들이 전화도 많고 왕래도 빈번하며 친밀도가 높은 가정도 없지 않았다.

“명절때면 자식들이 7남매가 여기저기서 오니까 분주해지고, 우리 안사람도 친자식처럼 대하고 노력도 많이하죠… 그러나 우리 안사람 애들도 둘이나 있지… 자주 오지는 않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곤 해요. 그리고 자식들이 지 어머니하고는 잘 지내고… 나 하고도 무난히… 그냥 별고없는지 물어보는 정도죠…”(사례 5)

“내 자식이 많고(7명), 우리 아저씨 자식도 많아서(6명)…음… 우리는 별로 외롭지 않아요. 우리 아저씨 아이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잘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친아버지처럼 알아요. 다 저희들이 직장 다니니까 우리들한테 크게 걱정되는 일은 없지요. 뭐… 전화도 자주하고 다들 가깝게 사니까…”(사례, 14)

이러한 점은 초혼의 노부모 단독 가구와는 다른 점으로서 초혼의 노부모단독 가구가 자녀들과 심리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녀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살며 상호 접촉을 빈번하게 함으로써 내용상 수정 확대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여성한국사회연구회 c, 1992)이라면, 재혼해서 성립한 노부모 단독 가구는 자신의 자녀들과는 지속적인 심리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배우자의 자녀들과는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으나 위의 사례에서는 의붓자녀 관계를 남성노인이 안사람과 잘 지내고 있거나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가정에서는 부모자녀간 모두가 서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된 노인들이 자녀들의 동의에 의해 재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부모의 새배우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는 경우는 자녀들의 동의를 결코 자신들의 새부모로서 정신적 부양을 하겠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5. 노년기 재혼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재혼 가족의 경우 친족이나 지역 사회의 지지가 부족하고 특히 이혼 후의 재혼은 이전의 배우자와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과정과 재혼 후 생활에서도 여성 노인에게 여러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노인들이 자녀들의 권유나 지지 또는 주변 사람들의 소개를 받아 재혼(11명)하였고, 나머지는 노인들이 근거리에서 자유스럽게 알게되어 재혼한 자유혼(3명)은 재혼생활의 적응에 있어서 대체로서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남성노인의 경우 초혼인 여성 배우자와의 부부관계 및 가정·사회생활 적응은 원만하게 나타났지만 이혼한 여성 배우자와의 부부관계 및 가정·사회생활 적응(3명)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년기의 재혼에서는 아직까지는 자녀들과 동거하는 사례(8사례)가 많았고, 노부부가 자녀와는 독립된 한 가구를 형성하려는 의지가 강해 실제로도 6사례가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고 있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혼 후의 경제적인 문제였으며, 특히 두 배우자 중 한쪽이라도 재산과 경제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독립해서 살아가고 있었다. 본 조사에서는 재혼한 노부부들 모두가 경제력이 부족하지는 않았고, 그러나 아직 과반수 정도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부족한 면이 보여 자녀들의 관심과 경제적인 지지가 절대로 필요했으며 또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지지가 노부부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주로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나이가 많은 상태로 결혼하기 때문에 남자 노인이 먼저 죽고 다시 여자 노인이 혼자 남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남자 노인은 배우자에게 물질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었고, 여자 노인은 혼자서 살게 될 날에 대한 불안감, 즉 남편의 자녀들로부터 부모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과 경제적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남편과의 갈등과 그로 인한 성적 부

적용까지 나타났다. 특히 남성 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사별한 경우보다 이혼한 경우(3사례)가 부부관계 적응이 어려웠다.

“내가 먼저 갈 것 같은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집 한채 밖에 없는데 내가 만약 먼저 가면 안사람이 자식들(전처 자녀, 현 배우자 자녀) 도 조금씩 떼어주고, 자기 앞가림 할 것이고 안사람이 먼저 가면 내가 자식들과 상의해서 살아가고...”(사례, 6)

“남들이 볼 때는 안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모양새랄지, 가사일을 다 돌보아 주니까 불편한 점은 없지요. 그러나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때때로 나와 사별한 후에 살 것을 걱정하다가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돈)을 너무 밝히니까 부부간의 금슬에도 문제가 없지 않지요... 늙으면 마음이 편해가 되는데...”(사례, 3)

이와 같이 특히 노년기의 재혼에서는 여성 노인의 경우 4사례중 3사례가 부부간의 연령차가 8~10년 정도의 차가 있어 남성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수명으로 인해 또 다시 홀로 되는 것에 대하여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경우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까지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재혼이 여생에 대한 일시적인 대처 방안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주며, 젊어서부터 경제권 확보에 관심을 주려야 하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사별 및 이혼한 노인의 재혼의 실체를 연구함으로써 재혼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와 지식·이해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홀로된 노인들로 하여금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지향케 함으로써 바람직한 여생을 누리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하여 사별 및 이혼한 노

인의 재혼 실체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사별 또는 이혼후 현재까지 재혼생활을 성공적으로 유지해 온 사람을 대상으로(53세 이상 된 장·노년기의 재혼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 남자 노인 10명과 여자 노인 4명 등 총 14명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의 조사에서 배우자와 사별 및 이혼한 노인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재혼 동기를, 자녀들과 경제력이 있어도 배우자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 즉 외로움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홀로된 노인들은 자신의 외로움의 대처방안으로서 재혼을 선택하였으며, 새로 맞은 배우자나 상대방의 전혼 자녀들과의 갈등과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면서 재혼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둘째로, 재혼의 성립과정은 노년기의 재혼에 있어서도 초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선택 과정을 보이고 있다. 즉 중매혼과 자유혼으로 재혼이 이루어졌는데, 중매혼의 경우 대부분 자녀나 주위 사람의 소개로 만난 사람과 한 두번 보거나 잠시 교제를 통해서 결정한 중매혼(11사례)이 지배적이었고 자유혼이 3사례로 나타났다.

셋째로, 노년기 재혼 가족의 가족관계에서는 부부간의 적응은 다음과 같다.

노년기에 재혼한 부부는 대부분 자녀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서로의 노화에 적응을 한 상태이므로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의 적응 여하에 따라 부부관계의 만족도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1) 경제적 적응에 있어서는 대체로 남자 노인의 경우 은퇴한 후라도 자신이 은퇴전에 모아두었던 재산이나 자녀들의 용돈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도구적 역할을 계속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자 노인은 경제력이 있는 경우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기도 하지만 아직도 자녀들의 용돈과 교육비 제공은 물론, 재혼한 남편의 용돈까지도 주고 있으며, 경제력이 없는 경우 남자 노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2) 애정 및 성적 적응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이 연령이 높은 경우는 애정문제와 성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체로 쑥스러워 하거나 표현 방법을 단순하게 '서로 잘한다' 고만 이야기하면서 얼버무렸으나 연령이 낮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참여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에 애정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성적 적응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의 경우 연령이 많아져도 지속적인 경향이 있으며, 배우자와의 성생활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대답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재산문제나 생활비의 요구가 높아질 때 sex적인 면과 애정문제까지도 갈등이 높아지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여자 노인의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성적 적응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

3) 종교적 적응은 배우자 선택시 상대의 종교를 고려했기 때문에 동일 종교인 경우 부부적응에 큰 문제가 없었으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남자의 경우 배우자가 남편의 종교에 따르는 경우(3사례)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부부간의 종교생활의 참여정도(weight)에 있어서는 전혀 갈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체로 노인 부부의 종교문제는 노년기의 안정된 부부생활을 위해서 서로 간섭을 안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재혼생활에 어려운 점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위로 받는 것 같이 보였다.

4) 친족 적응에 있어서는 특별한 일인 애사·경사에 참석하거나 평소애 왕래하는 일, 서로 간에 전화로 안부를 묻는 일, 제사 지내기, 명절날 가족모임 등에 부부가 어려움 없이 참석하는 경우와 또한 참석 여부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어 부부적응 및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남자 노인이 재혼이고 여자 노인이 초혼일 때 친족적응에 있어서 초혼처럼 아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자노인이 이혼경험이 있을 경우(3사례) 성격적인 면에서 폭넓은 대인관계를 원치 않는 편으로 부부적응에 있어서 어려움과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의사소통 적응에 있어서는 재혼생활은 초혼과는 달리 결혼생활을 이미 경험한 입장이기 때문에 대체로 초혼과는 달리 서로 의사를 존중하려고 노력하거나, 주의를 많이하는 편이며,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일로 곤란하거나 어려운 일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남성 노인의 경우 집안의 안정을 위해 초혼 때와는 달리 '꼭' 참는 입장이 많다고 말하고 있으며, 썰렁러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상대의 눈치를 보아 가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편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넷째로, 성인자녀 적응에서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의 재혼은 주로 자녀들의 이해와 권유,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이루어졌으며, 자녀들이 대부분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재혼한 노부와 독립된 가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갈등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대부분의 자녀들이 새로 맞은 의붓 부모에 대해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이따금씩 찾아뵙기도 하고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명절에만 참여하는 경우(7명)이고, 자주 왕래하는 경우(4명), 그리고 한 쪽 배우자의 자녀가 없어서 왕래가 없는 경우(3명)로 구분되었다. 물론 재혼한 노인들 역시 그것을 당연시 여기거나 필요에 따라서 본인만 자기의 전혼자녀에게 다니는 경우와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보러 배우자 없이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두 배우자와 전혼 자녀들이 전화도 많고 왕래도 빈번하며 친밀도가 높은 가정(3명)도 없지 않았다.

다섯째로, 노년기 재혼의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재혼 가족에 대한 친족이나 지역 사회의 지지가 부족하고 특히 이혼 후의 재혼은 이전의 배우자와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과정과 재혼 후 생활에서도 여성 노인에게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재혼생활에 있어서 부부적응은 대체로 서로 적응하려고 노력하였고, 남성 노인의 경우 초혼인 여성 배우자와의 부부관계는 원만하게 나타났지만 이혼한 여성 배우자와의 부부관계 및 가정·사회생활 적응(3명)은 어려움과 갈등이 높은 것으로, 그 갈등의 요인이 대체로 재산문제와 생활비 인상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남성 노인의 경우 성적욕구 충족에 있어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는 상태였다. 또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에게 요구한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 애정 및性生活·대인관계의 문제까지 갈등이 빚어짐이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 노인이 경제력이 없이 재혼을 했을 경우 초혼과는 달리 여러 가지로 남성 노인보다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 예상되며, 또한 주로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나이가 많은 상태로 결혼하기 때문에 남자 노인이 먼저 죽고 다시 여자 노인이 혼자 남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남자 노인은 배우자에게 물질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었고, 여자 노인은 혼자서 살게 될 날에 대한 불안감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노년기의 재혼에 관하여 사회의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재혼의사가 있어도 떳떳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노인 본인은 물론 자녀세대와 사회의 개방적인 사고로의 전환과 함께 홀로된 노인간의 교제 및 재혼 추진을 위한 주선기관과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등이 요청된다.

둘째로, 이러한 결과들이 실제 노인의 재혼 상담 및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정·사회·국가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재혼 노인들에게는 그들의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 여건 및 시설기관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로, 재혼은 사별 및 이혼한 혼자된 노인의 삶을 위한 하나의 대안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정서적·심리적 욕구를 잘 파악하여 재혼 이외에도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함으로써 그들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홀로된 노인이 홀로 살아가는 데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는 노인복지 체계가 시급한 실정이다.

끝으로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결혼을 다루는 연구의 성격상, 표본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初老期인 53세 이상인 비교적 젊은 노인층부터 조사하게 되어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2. 본 연구의 결과는 표본의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사별 및 이혼한 전체 노인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역시 무리가 따른다고 사료되어 질적 연구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은진(1995), “홀로된 노인의 재혼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 김혜선(1992), “배우자 선택과정과 결혼적용도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3) 김태현, 한혜신(1996), “사별노인의 재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 16, No. 1, 18-38/
- 4) 동아일보(1996), “따로 사는게 편하다”, 12월 9일.
- 5) 박재간 외(1995),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서울: 나남출판사)
- 6) 박재간 (1982), “노년기생활”, 노인대학 교재, 대한노인회.
- 7) 서병숙 (1995), 『노인연구』, 교문사
- 8) \_\_\_\_\_ (1988),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9) 여성한국사회연구회(1995), 『한국 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 문화연구소.
- 10) 연합연감(1996), 「노인·여성·청소년」, 연합통신, p. 447.
- 11) 유영주 외 5인(1995), 『결혼과 가족』, 경희대학교 출판국.
- 12) 임춘희(1994), “재혼가족의 시각과 연구성과에 관한 문헌고찰” 대한가정학회지, Vol. 32, No. 2.
- 13) 조기동(1993), “혼자 사는 노인과 재혼” 한국노년학회, Vol. 13, No. 19.
- 14) 최영아(1996), 홀로된 노인의 성의식과 再婚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Vol. 34, No. 6.
- 15) 한경혜(1996), “인구의 고령화와 가족생활”, 국제 학술심포지움: 고령화 시대와 삶의 질.
- 16) 한혜신(1996), “사별노인의 삶의 대처 방안으로서의 재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한국여성개발원(1993), 『여성노인』, 교육자료 300-22.
- 18) 환경백서(1996), 「인구추세」, 환경부, p. 6.
- 19) Lawrence H. Ganong & Marilyn Coleman(1994), Remarried Family Relationships, Sage Publications, pp. 1-2.
- 20) Bernardo, D. H.(1987), “Divorce and remarriage at Middle Age and Spanier & Furstenberg, “Remarriage and reconstituted families”, Handbook Marriage and the family(New York, Plenum Press); 임춘희, 전개논문, P. 4에서 재인용.
- 21) Glick(1984), “Remarriage: Some Recent Change & Vari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1, pp. 455-478.
- 22) Monahan(1958), “The Changing nature and Instability of Remarriage”, Eugenics Quarterly 5, pp. 73.
- 23) Furstenberg, F, F(1982), “Conjugal Success: Reentering marriage after Divorce,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4(New York Academy), pp. 107-146.
- 24) Ihinger-Tallman(1987), M. & Pasley, K., Remarriage, Sage Publications, pp 47-48.
- 25) Water C. McKain(1972). A New Look at Older Marriage. Family Coordinator, 2.
- 26) Moss, M. & Moss, S.(1980), “The Image of the Deceased Spouse in Remarriage of Elderly Widow”, J.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 59-70.
- 27) Vinick, B. H.(1978), “Remarriage in Old Age, The Family Coordinator, 27, 359-363.

## 〈부 록〉

〈표 1〉 평균수명

(단위 : 천명)

연도별 구 분	1960	1970	1980	1990	1996	2000	2020
평균	55.3	63.2	65.8	71.3	72.9	74.3	77.0
남	53.0	59.8	62.7	67.4	69.5	71.3	74.9
여	57.8	66.7	69.1	75.4	76.6	77.4	79.0

자료 : 통계청

〈표 2〉 主要 人口指標 推移

(단위 : 천명, %)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2	1995
총인구	32,241 ( 2.4)	35,281 ( 1.8)	38,125 ( 1.6)	40,806 ( 1.4)	42,869 ( 1.0)	43,663 ( 0.9)	44,851 ( 0.9)
노령인구	991 ( 1.3)	1,217 ( 4.2)	1,456 ( 3.7)	1,742 ( 3.7)	2,144 ( 4.2)	2,283 ( 3.2)	2,543 ( 3.5)

자료: 통계청(1993), 『지역간 인구 불균형 분포의 원인과 결과』; 수도권 = 서울 + 경기도